

관심, 사람을 살리다

맨홀 아래에서 구조된
60대 알몸 남성



CBS

김승모 기자



2021년 4월4일 자정 무렵 알몸으로 맨홀 아래에 있던 60대 남성이 구조될 당시 모습(공장 관계자 제공)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알몸으로 떨고 있던 남자가 한 줄기 빛을 보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맨홀 아래서 구조된 알몸 남성... 꼬리를 무는 질문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공장 앞마당에 자리한 맨홀 뚜껑 구멍에서 기다란 철근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더니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공장 대표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맨홀을 열고 알몸 상태의 60대 남성을 발견해 구조합니다. 3년 전인 2021년 4월6일 보도입니다.

이 남성, 어떻게 맨홀 속으로 들어갔을까?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버려진 노인 학대 피해자일까? 범죄 피해자는 아닐까? 등등 뉴스의 한 장면이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이 남성이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이웃과 교류 없이 혼자 지냈다는 겁니다. 또 공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축사의 하수구 통로를 통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서 사건 현장을 직접 보고 사건의 이면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한두개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무조건 현장을 가봐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한 줄기 빛?...

맨홀 구멍에서 솟아오른 철근

먼저 남성이 발견된 맨홀이 있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철근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공장 대표입니다. 그는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한 것 자체가 ‘천운(天運)’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홀 구멍에 솟아난 철근을 발견한 건 2021년 4월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평소 같으면 공장 문을 닫고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녁 7시쯤 공장에서 기르는 개와 산책하기 위해 나왔다가 맨홀 구멍에서 ‘빠죽’ 나온 철근을 발견한 겁니다.

공장 대표가 혹시나 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철근이 조금씩 밖으로 나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를 수상히 여긴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조했습니다.

맨홀 뚜껑 약 1.5m 아래에서 알몸으로 있던 남성은 하수구 물에 몸이 일부 붙어 있었고, 저체온 증세와 무릎과 엉덩이에 상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CCTV에 철근이 움직인 화면이 찍힌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대표가 철근을 발견한 시간은 저녁 7시. 구조된 것은 자정 무렵이니까 최소 14시간 이상 맨홀 아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성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장 대표는 특히 남성이 발견되기 전날에 비가 제법 많



2021년 4월4일 구조 당시 맨홀 뚜껑을 열기 위해 애를 쓰는 소방당국 관계자 모습.(공장 관계자 제공)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이 인근 축사의 하수구 통로를 이용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 사진은 비교를 위해 남성이 구조된 공장 인근에 있는 다른 하수구 통로를 촬영한 모습

이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비로 자칫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지하 맨홀 속에 있던 걸까요. 맨홀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외에는 단 한번도 열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조에 나선 소방관들도 맨홀 뚜껑을 열기 위해 꽤 애를 먹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일 텐데요. 남성이 지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 한 줄기 ‘빛’이 스며든 이 맨홀을 발견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언제·어디서·어떻게·왜?... 행적은 ‘오리무중’

완성도 높은 글은 ‘육하원칙(六何原則)’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육하원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구조 당시 이름과 나이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성이 다른 하수구 통로를 통해 들어왔다가 맨홀 자리까지 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맨홀 현장에서 500~600m 떨어진 축사에 연결된 하수구를 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남성이 구조된 공장 인근에는 비암천과 문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비암천이 흐르고 서쪽

에는 비암천과 문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축사에 있는 하수구 통로를 통해 거꾸로 들어간 게 아닐까 추측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수구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 80cm 크기로 성인 남성이 설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축사가 사유지인 탓에 제가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주변에 있는 다른 하수구 출구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크기로 보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은 남성, 퇴원 후 증세 '악화'

이 남성은 왜 들어갔을까요? 옷은 왜 벗었을까요? 경찰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이 남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성이 인근에서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어 신원 파악을 해 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남성이 구조 당시 이름을 밝히자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남성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남성은 정신 질환을 앓아

2012년쯤 파주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꽤 오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맨홀에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3주 전인, 3월 중순 무렵 퇴원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던 남성은 퇴원 당시만 해도 본인의 거처를 스스로 정할 정도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옆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다 보니 약 복용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증세가 다시 악화된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맨홀에서 구조될 당시에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른바 '헛소리'만 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악화'한 증세... 퇴원은 어떻게?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 한 이 남성은 어떻게 퇴원하게 된 걸까요? 호전된 상태로 퇴원했지만, 한달도 안 돼 급격히 나빠진 걸까요? 가족의 도움 없이 환자가 혼자 살았던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남성이 퇴원한 병원에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치료 내용이나 상태에 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



60대 남성이 구조된 맨홀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 철근을 넣어본 모습

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성은 입원할 때도 스스로 했고, 퇴원도 남성이 원해서 심사를 받고 이뤄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가족이 있었지만, 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퇴원 이후 보살핌을 받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퇴원하면 끝?...

퇴원 통보 규정에도 '공백'은 발생

사건을 취재하다 보니 퇴원한 정신 질환자의 사후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자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등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달 등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3월 중순쯤 퇴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하기 전 일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행정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 모니터링의 공백이 있고 서류만으로 구체적인 병증 상태나 기초사실 관계 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원사실 통지

가 오면 공문에 따라 센터가 개입하게 되지만, 당사자를 통해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센터가 퇴원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당시 규정상 퇴원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병상 축소…손쉬운 퇴원?

흥미로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입니다. 2021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61769명, 누적 사망자도 917명에 이르던 시기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기세는 정신병원 시설에 있던 환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 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2021년 3월5일자로 개정된 겁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로 입원실 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병상 간격을 기존 1m

에서 1.5m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입원실 최대 병상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등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1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신정정신의학회 등을 비롯한 14개 관련 학회는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취재 당시인 2021년 5월23일 전자공청회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니 개정안에 대해 찬성 3, 반대 1975, 기타 의견 417로 반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기존 환자 6.8%가 퇴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여건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퇴원할 가능성은 기존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알몸으로 맨홀 아래서 구조된 이 남성이 퇴원한 시기는 3월 중순입니다. 3월5일 개정된 시행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 또는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202116)최종.hwp
- ★201209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수정.hwp

찬성 : 3 반대 : 1975 기타 : 417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0/1000

등록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2020년 12월1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진행한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2021년 5월23일 기준 집계된 찬성과 반대 의견 모습

조금 더, 한 번 더…생명도 살리는 큰 힘 ‘관심’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라는 짧은 글이 떠오릅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장 앞마당 맨홀 구멍에 꽂힌 철근을 무심코 빼 버렸다면 알몸으로 떨고 있던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취재를 통해 ‘관심은 사람도 살린다’는 경험을 몸

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접하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관심의 힘을 새롭게 느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취재 내용은 2021년 5월24일 유튜브 브 〈김현정의 뉴스쇼〉 코너 ‘덧풀쇼’에서 소개했습니다. 남성은 구조 후 일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생활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는 환자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CBS 김승모 기자